

[안전신문] '군중 안전' 국제 심포지엄 열린다 (2025.3.18)

정민혁 기자 입력 2025.03.18

출처: <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6825>

：

이태원 참사 첫 학술적 논의



/ 주최 측 제공.

이태원 참사 이후 군중 안전 국제 심포지엄이 열린다.

학계에 따르면 이달 19일부터 21일까지 군중안전 국제 심포지엄 Crowd Safety Summit 2025가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다.

한국과 호주 주도, 일본, 중국, 인도, 독일, 벨기에, 스위스, 이란 등 30여 개 국가의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3일간 발표, 토론, 워크숍을 통해 군중안전의 최신 연구와 실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의 KAIST(한국과학기술원)와 호주 멜버른 대학교가 공동 주최하며, 이태원군중안전연구소(IRCCC) 등 여러 기관이 후원한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대규모 인파가 운집하는 상황의 안전이 주로 치안과 기본 안전 관리 차원에서 다루어져 왔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제 전문가들의 최신 경향과 이론적 원칙, 미래 방향을 제시하고 한국서도 체계적이고 학문적인 군중안전 접근법을 도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각 국가의 군중안전에 대한 전문적 발표와 국내 이태원 참사 관련 학술적 접근이 국제적 학술회의서 이뤄진다.

왕순주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군중압사 상황에서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학제간 연구: 이태원 참사를 중심으로'를, 박준영 금오공과대학교 교수는 '2022년 이태원 군중 밀집 현상: 무엇이 일어났나'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태원 참사 이후 국내에서는 공개적인 학술 토론이 거의 이뤄지지 못했지만 이태원군중안전연구소(IRCCC, 설립자 양필승 박사)의 왕순주, 박준영 교수는 해외 학회에서 꾸준히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국제적 기반을 다진 것으로 전해졌다.

주최 측은 Crowd Safety Summit 2025는 무료 참가가 가능하지만 신청된 소수 정예 참가자를 대상으로 집중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고 알렸다. 또 국내 군중안전 관련 종사자와 공공기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키도 했다.

-